

쾌적하고 외관상 시원스러운 허니콤 조직

우리 나라에서도 어느 시절부터인지 제법 이름 있다고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고 나면 후식을 주문하게 된다. 이러한 후식에는 커피 등의 차라든가 아이스크림, 과일 등이 주로 나온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과자로 된 용기에 담아 주는데 이러한 과자 용기는 요철이 있는 되모양을 하고 있어 봉소라든가 허니콤(honeycomb)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을 원단에 적용하면 되가 상하 좌우로 이어져 있는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승직(枳織)이라고 하기도 하고, 벌집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봉소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허니콤 조직은 땀이 많은 피부에 상쾌함이 좋고, 외관상 눈으로 보기에든 시원스럽다. 옷감으로서 이용되는 허니콤은 요철이 낮고 작은 되모양이 많다. 여름철 셔츠라든가 목욕 가운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요철이 심하고 되모양이 큰 것이 많다. 허니콤은 신축성 외에도 흡수성이 큰 면사를 소재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행주로도 이용되고 있다. 허니콤과 더불어 여름철 옷감으로 코튼 아문젠(amunzen)이 있다. 땀 투성이인 피부에 끈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상쾌하고 피부와 떨어짐이 좋다. 그래서 여름철 옷감에 채용되고 있는 이유다. 산뜻하고 드라이감이 있다. 미세한 요철과 섬세한 음영을 가지고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아문젠의 매력이다. 여름철 과일로 배가 있다. 이러한 배의 껍질과 같은 요철과 손 촉감을 천의 표

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문젠은 이지직(crepe weave) 이라고도 한다.

* 허니콤 조직(honeycomb weave) : 벌집과 같은 모양으로 짜여진 섬유 조직으로 써 "봉소직"이라고도 한다. 카드사나 코머사를 사용하여 도비 직기로 짠다. 고급실의 봉소직은 여성복, 아동복 감으로 사용되며, 무거운 면직물은 일반적으로 합사를 쓴다. 폭은 150 cm 또는 그 이상이며, 용도는 덮개, 베드 스프레드(bed spread), 슬립 커버 등에 쓰인다. 더 무거운 직물은 색실을 써서 미표백된 아마포와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몽크스 클로스(monk's cloth)라고도 한다.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타월로도 사용된다. 질이 좋고 작은 벌집 조직으로 짠 직물은 와플 피케(waffle pique)라고도 하는데, 실제 피케와는 관계가 없다. 털실로 짠 허니콤은 옷감, 슈트용으로 사용되며, 면사로 짠 것은 와플 클로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